

【Abstract】

Tiles craftsman as seen in Roof Tiles with Inscript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Lee, Yu-seob

(Researcher, Tongil Cultural Heritage Reserch Institute)

Tiles craftsman is a craftsman who makes tiles, and tiles are a building member used on the roof of a building. Tile tiles are usually limitedly used only in buildings of authority and are closely related to power. This is the reason why the status of roof tiles cannot be taken lightly.

Until now, studies on tiles intersect between an art history perspective that emphasizes patterns and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that focuses on production techniques. However, what is more important than patterns or production technology is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 The lack of literature data is an obstacle to restoring the ancient society. In such an atmosphere, it is noteworthy that characters are identified on the roof tiles. Character tiles were written by people at the time, unlike historical documents compiled later. The contents of the characters are mainly the production date and time, the owner, the manufacturer, the supplier, and the producer.

The types of craftsmen identified in letter tiles are broadly

classified into A government office craftsman, The temple craftsman, and individual craftsman. If A government office craftsman produced tiles by the state government, The temple craftsman worked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craftsman emerged as the public production system such as 六窯 and 瓦所 collapsed.

The collapse of the nation's public production system made roof tiles an object of sale. For example, in the 12th century, “贖銅瓦徵” was implemented to relieve sinners of their sins.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office craftsman and the temple craftsman were included in the national production system until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appearance of a kiln represented by 別瓦窯.

Keywords: Roof Tiles with Inscription, A government office craftsman, The temple craftsman, Individual craftsman, Tile craftsman

번역논문

高句麗의 五族에 관하여*

譯 김성현**

- I. 고구려의 五族-那集團
- II. 나집단과 王位の 문제
- III. 那名の 사용례
- IV. 나집단과 원시정치협동체
- V. 나집단은 소위 clan이 아니다
- VI. 那의 原義
- VII. 나집단의 부족적(tribal) 성질
- VIII. 고구려에서 성씨 성립의 시기
- IX. 那貴族과 왕위와 왕권의 추이

I. 고구려의 五族-那集團

고대 고구려국의 사회구성을 고찰하는 데 매우 흥미로운 자료로서 주의해야 할 기사가 『魏志』 및 『後漢書』 동이전에 각각 다음1)과 같이

* 이 글은 三品彰英, 1954,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6, 13~57쪽을 번역한 것이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강사

1) [역자 주] 원문은 ‘左’이다. 원문과 번역문의 書字方向이 다르므로 원문의 ‘左右’는 문맥에 따라 ‘다음, 아래[혹은 下], 위[혹은 上]’ 등으로 번역하였다.

보이고 있다.

本有五族，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本涓奴部爲王，稍微弱，今桂婁部代之……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雛加，涓奴部本國主，今雖不爲王，適統大人，得稱古雛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絶奴部世與王婚，加古雛之號(『魏志』高句麗傳)

凡有五族，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本涓奴部爲王，稍微弱，後桂婁部代之(『後漢書』東夷傳)

按今高驪五部，一曰內部，一名黃部，卽桂婁部也，二曰北部，一名後部，卽絶奴部也，三曰東部，一名左部，卽順奴部也，四曰南部，一名前部，卽灌奴部也，五曰西部，一名右部，卽涓奴部也(同上書章懷太子注)²⁾

이것은 고구려 五族, 五部 연구의 근본 자료로서 오늘날까지 여러 학자가 論考를 거듭하여 온 고문헌이다. 오족 및 오부에 관한 자료는 이 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이하 麗紀라 略記함)³⁾에서도 여기저기서 적잖이 보이는데, 특히 학자들이 위의 東夷傳 기사를 그 근본 자료로서 높이 평가한 까닭은, 그것이 오족이 존재한 당시의 고문헌이라는 점에 있으며, 사료 가치의 순위에서 본다면, 연대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고구려본기에 실려 있는 기사에 비해 그것이 특히 중요시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고구려의 역사가 고구려본기가 기록한 바와 같이 발전하여 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가 완성의 훨씬 이후에 찬술된 이러한 종류의 史籍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그 안에는 옛 민족 사회적 전승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서도, 선불리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역시 부득이하다. 따라서 우선 『위지』, 『후한서』

2) [역자 주] 원문에서는 인용문과 본문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았는데, 번역문에서는 본문과 인용문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하 인용문 작성 방식도 동일하다.

3) [역자 주] 원문은 고구려본기를 이후 ‘麗紀’라 약칭하였으나 번역문에서는 ‘고구려본기’로 표기하였다.

등 중국 측 사료에 따라 표준적인 연대사적 지식을 획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고구려본기의 기사를 비판하고자 한 종래의 연구법은 확실히 견실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위지』에서 기록한 바가 모든 점에서 늘 고구려본기를 비판하는 規準의 자격을 가지는 것일까. 적어도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오족, 오부와 같은 고구려 자체의 사회조직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외국 측 사료인 『위지』의 기사와 같은 종류가 과연 고구려본기를 활용할 수 없게 할 만큼 고도의 規準的 자격을 지닌 것일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본기 쪽에 오히려 『위지』 등을 비판할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 없을까. 이러한 점을 일단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⁴⁾

확실히 『위지』 고구려전은 그 당시 현재의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연대사적으로 높은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반면 외국인의 관찰과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족, 오부라는 종류의, 타민족 사회의 내부 기구와 기능적인 관계를 지니는 하나의 사회조직에 관한 것과 같은 문제에서는, 외국인의 기사가 설령 당시의 기록에 의하였다고 하여도 그 불완전함을 적지 않게 드러낸다. 이와는 반대로, 고구려 자신이 전하는 것 안에는, 연대사적으로야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민족전승적인 점에서 그러한 사회조직 내부의 의의를 시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이하의 연구에서 이 방면의 사료를 활용하는 데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요하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연구의 순서로서는, 역시 다루기 쉬운 漢籍 측 사료의 고찰부터 착수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실을 알 수 있는지 고증하고자 한다.

上掲 위지 고구려전의 기사는 고구려의 오족 연구의 근본 사료인데, 『후한서』 동이전 기사에 더해져 있는 唐 장희태자가 註記한 것은 이

4) [역자 주] 원문에서는 이하 본문의 내용부터 첫 네모 상자 속 문장이 나올 때까지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문에서는 읽기의 편의성을 위해 문맥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근본 사료에 대한 唐代의 한 해석이며, 唐代 고구려에서 시행되던 오부의 제도를 漢魏 시대의 오족에 하나하나 해당시켜서 이룬 설이다. 이 오족과 오부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한들의 학자의 논고를 거친 바로,⁵⁾ 적어도 장회태자의 설이 漢魏 시대의 제도와 唐代 현존의 제도를, 그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무시하고 단순히 결부시킨 것이라는 점은 일독하여 분명하며, 오족에 관하여는 하등의 새로운 사료를 더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오족이라든가 오부라든가 하는 族·部 등 한자의 사용은 연구가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備字에 관하여 일단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唐代 고구려에 있었던 五部는 고구려에서 실제 某部라는 식으로 部字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오부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지만, 漢魏 시대의 涓奴部·絶奴部 등 五部の 部는 『위지』 혹은 『위략』 등이 漢譯의으로 사용한 것으로, 옛 고구려에서 部라 칭하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本有五族」이라고 하므로, 唐代 고구려의 五部和 구별하기 위해 五族이라 칭해져 왔지만, 이러한 族字의 사용에도 이미 漢人 측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涓奴部 등의 집단이 한자 部나 族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근본 문제로, 연구를 진행한 후가 아니면 부주의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자이다. 『위지』에 部和 族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만일 두 글자를 사용하여 部族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부족이라는 용어가 영어의 tribe, 독일어의 der Stamm의 번역어로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既成概念이 새로 들어갈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이러한 한역어를 피하고, 가능한 한 고구려 土語를 사용하는 쪽이 안전하다. 이 점에서 다행히도 오족의 명칭을 보면, 涓奴部, 絶奴部 등 접미어로 추정되는 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또한 고구려본기에도 오족과 같은 부류에 상응하는 것으로 椽那部, 貫那部, 藻那部, 桓那部, 朱那部, 沸流那部, 提那部 등의 이름이

5) 今西龍 博士, 「高句麗五族五部考」(『史林』6-3); 池内宏 博士,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同, 『滿鮮史研究, 上世篇』所收, 補正.

보인다. 모두 那字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奴, 那 두 글자는 同語를 나타내는 借音字임이 명백하다. 다만 『위지』에 실려 있는 桂婁部만이 이 奴音 어미를 지니지 않고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 점은 뒤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그것은 어찌하였든 간에, 고구려 자체의 이러한 傭字例에 따라,

五族 및 그에 비견할 만한 집단을 원시고구려의 那集團
혹은 那協同體라 假稱하고자 한다.

이 가칭은 그 집단의 실체가 구명되었을 때 적당한 譯語로 개칭되어야 마땅한데, 그때까지는 이 가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즉 지금까지 오죽으로 해석하여 칭해져 온 『위지』 시대의 것을 나는 那集團이라 부르고, 唐代에—혹은 그 이전 어느 시기부터—존재하였던 것을 오부라고 칭하고자 한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가칭이겠지만, 특정 민족의 고대사회 연구에서는, 그에 사용되는 명사의 부주의에서부터 쓸데없는 혼란과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가칭을 구태여 사용하였다.

II. 나집단과 王位の 문제

우선 다섯 개의 나집단에 관한 『위지』의 기사는 고구려의 어느 때 사정을 전하는 것일까. 이 『위지』의 「本有五族, 有涓奴部 ……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는 문장은, 翰苑 古寫本の 殘闕 제30권, 蕃夷 高麗條 註 所引의,

「魏畧曰, 其國大(本?)有五族, 有涓奴部順准(灌?)奴部樓桂樓部爲土(王?)徵(微)弱, 桂樓部代之」

라는 문장과 비교하면, 이케우치(池内) 박사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자가 魏略의 문장을 그대로 취하였던 것 같은 점은 명확하다.⁶⁾ 이로 미루어, 오죽에 관한 『魏略』의 나머지 기사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상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위지』의 (실은 『위략』의) 기사 내용의 시대를 시사하는 구절로서 「今桂婁部云云」이라 하는 속이 우선 주의된다. 이 속이 『위지』, 『위략』 찬술 당시를 가리키는 속이 아니라, 그것의 사료가 된 문헌이 성립한 시대를 가리키는 속이라는 것은, 『위지』의 문장을 끝까지 읽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속은 桂婁部가 왕이 된 시대이며, 本有五族 이하 그것까지는 이 속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더욱이 同傳에서는 다른 곳에 속이라 하고 있는 데가 두세 개 있으니, 즉 拔奇와 伊夷模의 왕 위계승 다툼과 관련하여, 「更伊夷模作新國, 今日所在是也」라고 하는 今日 및 「伊夷模死, 立以爲王(位宮), 今句麗王是也」라고 하는 속이다. 이것들로 미루어 보면, 문제의 속은 구려왕 宮의 시대이다. 이 왕 宮은 고구려본기의 산상왕이며, 고구려본기 기사를 수정한다면, 서기 233~245년경에는 확실히 재위하고 있다. 이 왕대에 얻은 현재 사료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 魏 측에서 고구려의 사료를 얻을 만한 어떠한 교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이에 관하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왕대에 일어난 前後 두 차례에 걸친 위 유주자사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이다. 아마도 이 원정을 통해, 혹은 그 이전의 교섭 간에 고구려 국내 사정을 실제로 보고 듣거나 혹은 조사한 결과, 『위지』 혹은 『위략』이 이용한 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도 좋은, 실증성이 높은 문헌이다. 그래서 우선,

위지의 문장 중 今桂婁部代之부터 加古雛之號까지의 기사는 3세기 前期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본디 고구려에 오죽이 있었고 그 중 涓奴部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태 이전의 일에 속한다.

6) 今西龍 博士, 「高句麗五族五部考」, 『史林』6-3 ; 池内宏 博士,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同, 『滿鮮史研究, 上世篇』所收, 補正.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本有五族」이라는 것은 계루부가 왕이 되기 이전에 다섯 개의 나집단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계루부가 왕이었던 『위지』가 말하는 현재에도 나집단이 이전과 같이 다섯 개였는지, 또는 그 사이에 증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나집단의 수를 말하는 5라는 숫자는 반드시 나집단이 존속하는 동안 내내 늘 있었던 숫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오류를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는, 일찍이 다섯 개의 나집단이 있고, 그 중에 涓奴部가 고구려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쪽이 안전할 것이다. 이 과거가 이른바 연노부 시대인 반면, 현재(『위지』에서 말하는)는 계루부 시대이며, 이 왕권이 연노부에서 계루부로 변하여 갔다는 사정이 조금이라도 분명하다면, 고구려 왕권의 본질과 그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고찰을 거기까지 나아가기에 앞서 일단 『위지』의 기사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고대 고구려의 王代史에 관한 支那史籍의 기록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은 『위지』의 기사일 것인데, 그 중 특히 고구려왕 伯固부터 位宮에 이르기까지의 기사가 그러하다. 즉,

伯固死，有二子，長子拔奇，小子伊夷模，拔奇不肖，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自伯固時數寇遼東，又受亡胡五百餘家，建安中公孫康出軍擊之，破其國焚燒邑落，拔奇怨爲兄而不得立，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還住沸流水，降胡亦叛伊夷模，伊夷模更作新國，今日所在是也，拔奇遂往遼東，有子留句麗國，今古雛加駿位居是也，……伊夷模無子，淫灌奴部生子，名位宮，伊夷模死，立以爲王，今句麗王宮是也。

위 기사는 구려왕 位宮(고구려본기 동천왕)⁷⁾ 재위 때를 현재로 하는 기사로, 이 왕 위궁의 아버지 이이모 형제의 王位繼爭의 쟁란 및

7) [역자 주] 앞에서 (位)宮을 고구려본기의 산상왕이라고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新國의 건설이라는 일대 정변은, 사료의 당시 현재에서 50년 전후 이전의 일이며, 따라서 그 기록한 바는 충분히 신뢰하여도 좋을 것이다. 단 외국인의 기록이 포함하고 있을 오해라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는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이모 형제의 정변으로 인한 新國—즉 『위지』 고구려전에 「都興丸都之下」라고 하는 丸都山 아래 新國의 건설과, 앞서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 하는 계루부에 의한 왕위의 교체는 동일 사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뒤 文意上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직면한다. 즉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고구려 王統은 시조 주몽 이래 바뀐 적이 없으며, 또 특히 『후한서』, 『위지』에 의하여도, 宮, 遂成, 伯固, 伊夷模, 位宮이라는 식으로 부자 상속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어, 여기서도 왕통 교체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과 消奴部, 桂婁部の 왕위에 관한 교체와는 분명한 모순이 있다고 일단 생각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시라토리(白鳥) 박사는,

「후한서에 의하면, 和帝 시기 고구려의 왕을 궁이라 하고, 그로부터 수성, 백고, 이이모를 거쳐 위궁에 이르기까지는 子子로 상속하여 왕통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들 왕은 모두 계루부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로 계루부에 앞서 消奴部가 고구려의 國主였다는 위지의 문장에 오류가 없다면, 이 交代는 후한 和帝 대에 해당하는 宮王의 앞에 있었던 것이다. 만약 또한 삼국사기 및 호태왕비문을 신뢰할 경우에는, 계루부의 왕통은 시조 동명왕 즉 雛牟王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되므로, 왕통의 교대는 이 왕대에 있었다고 해야 한다.8)」

라고 주장하였고, 나카(那珂) 박사는 이것을 논하며,

8) 白鳥庫吉 博士,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25-4.

『고구려국은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주몽 건국 이래 易代之 일이 없으며, 涓奴部本國主라 하는 것은 비류국왕 松讓을 이르는 것이다.9)』

라고 하였다. 모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주장이지만 동시에 사료가 말하는 바를 곡해 내지 부정하였다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都興丸都之下』, 『更伊夷模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本涓奴部爲王 …… 今桂婁部代之』 등의 앞뒤 문장을 통독한다면, 어떻게 보아도 이이모의 新國 건설과 涓奴部, 桂婁部の 왕위 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이모의 반대 세력이 그의 형 받기와 涓奴部였다는 것을 함께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위지』의 문장을 통독한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이다. 그렇다면 여러 선행이 보여준 의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의문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돌이켜 생각하여 보건대, 涓奴部·桂婁部 등의 나집단이 氏族 혹은 宗族의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하나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나집단에 대한 해석은 하나의 가설적 견해이며, 실은 이러한 가설적 견해야말로 『위지』의 上記 기사에 의해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의문시하고 있는 『위지』의 기사가 말하는 대로 나집단의 성질 및 나집단과 왕위와의 관계가 구명되어야 한다. 즉,

고구려의 왕통이 적어도 태조대왕¹⁰⁾ 궁 이후 혈통적으로 교체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이모의 新國 건설에 의해 왕위가 연노부에서 계루부로 이동하였다고 한 것이, 함께 모순 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집단의 성질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9) 那珂通世 博士, 『朝鮮古史考』, 『史學雜誌』5, 『那珂通世遺書』, 106쪽.

10) [역자 주] 원문에서는 ‘太祖大王’이라 하였는데, 오늘날 일반적인 표기를 감안하여 번역문에서는 태조대왕[혹은 太祖大王]으로 표기하였다. 이하 동일.

적어도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위지』의 기사를 통독하였을 때의 이해는 위와 같다.

Ⅲ. 那名의 사용례

나집단과 왕위와의 관계를 상술한 바와 같이 짐작하여 보았는데, 『위지』에 실린 기록 그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 것이고, 전술한 의문도 그 불완전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에 나타난 政權史的 방면, 특히 왕위계승 등의 문제는 魏 측의 기록에도 알기 쉽게 쓰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권이 고구려 고유의 사회 조직이었던 나집단과 기능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이면의 사정에 이르면, 아마도 그들에게 정확한 이해는 곤란하였을 것이다. 사실, 소노부가 왕이었다든가 계루부가 왕이라든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지』 자체가 그 의미 등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위지』의 기사는 『위지』의 찬자가 이해한 것 이상으로는 나오기 어려우므로, 너무 많은 것을 구할 수 없다. 나집단과 왕권과의 관계와 같은 部族 내부 기구에 관한 자료는, 외국인의 기사인 『위지』나 후한서 등보다도, 고구려 측의 사료에 의해 이야기하는 쪽이 보다 적당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측의 사료는 연대사적으로는 매우 평가가 낮고 민족전승적 성질의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 전승적인 점이 야말로 오히려 이 방면의 연구에서는 환영받아도 좋은 社會史料인 것이다.

이 연대사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과, 반드시 그 개개가 전하는 바가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별개의 사정이다. 이제 그것을 부당한 연대사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 민족문화사료로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고구려의 고대 생활이 남아 있는 기록이다. 그 중에는 假作된 전설이 있다고 하여도, 만약 그것이 고구려 사회 내에서 가작된 한에서는, 역시 생활을 반영한 기록이다. 나의 관심은 사료

의 절대연대에 얽매이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전하는 바가 나타내는 문화양상에 관한 상대연대이며, 그것에 의해 알 수 있는 문화양상적 연대는 고구려의 정치사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집단에 관한 고구려본기의 기사를, 그것이 빠져 있는 연대사적 틀에서 꺼내어 이용하는 것은, 사료를 본래의 모습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일단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나집단 관계의 사료를 摘出하여 보자.

- ① (대무신왕 5년, 夏4월) 扶餘王帶素弟至曷思水濱, 立國稱王, 是扶餘王金蛙季子, 史失其名, 初帶素之見殺也, 知國之將亡, 與從者百餘人至鴨淥谷, 見海頭王出獵遂殺之, 取其百姓, 至此始都, 是爲曷思王, 秋七月, 扶餘王從弟謂國人曰, 我先王身亡國滅, 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
- ② (同, 15년 春3월) 黜大臣仇都, 逸苟, 焚永¹¹⁾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 有不與者, 卽鞭之, 人皆忿死¹²⁾, 王聞之欲殺之, 以東明舊臣, 不忍致極法, 黜退而已, 遂使南部使者鄒穀¹³⁾素代爲部長…… 賜姓曰大室氏,
- ③ (태조대왕 20년 春2월) 遣貫那部沛者達賈, 伐藻那, 虜其王,
- ④ (同, 22년 冬10월) 王遣桓那部沛者薛儒, 伐朱那, 虜其王子乙音, 爲古鄒加,
- ⑤ (同, 80년 秋7월)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貫那于臺彌儒·桓那于臺菸支留·沸流那皂衣陽神等, [22쪽] 陰謂遂

11) [역자 주] ‘永’은 『삼국사기』 원문상 ‘求’이다. 번역문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원문 및 판본을 참고하였다. 이하 동일.

12) [역자 주] ‘死’는 『삼국사기』 원문상 ‘怨’이다.

13) [역자 주] ‘穀’은 『삼국사기』 원문상 ‘教’이다. 이하 번역문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인 표기를 감안하여 추발소 혹은 教과 同字인 勸을 써서 鄒勃素라 표기하였다.

成曰, 初慕本之薨也, 太子不肯, 羣寮欲立王子再思, 再思以老讓子者, 欲使兄老弟及, 今王既已老矣, 而無讓意, 惟吾子計之, 遂成曰, 承襲必嫡, 天下之常道也, 王今雖老, 有嫡子在, 豈敢覬覦乎, 彌儒曰, 以弟之賢, 承兄之後, 古亦有之, 子其勿疑, 於是左輔沛者穆度婁知遂成有異心, 稱疾不仕,

- ⑥ (차대왕 春2월) 拜貫¹⁴那沛者彌儒, 爲左輔 …… (秋7월) 左輔穆婁¹⁵稱疾退老, 以桓那于臺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冬10월)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臺, 皆王之故舊,
- ⑦ (同, 20년 冬月¹⁶) 椽那皂衣明臨答夫因民不忍弑王, 號爲次大王,
- ⑧ (고국천왕 2년 春2월)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 ⑨ (同, 12년 秋9월) 中畏大夫沛者於畀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怒欲誅之, 左可慮等與掾那¹⁷謀叛,
- ⑩ (중천왕 冬10월) 立椽那¹⁸爲王后
- ⑪ (同, 4년 夏4월) 王以貫那夫人, 置革囊投之西海, 貫那夫人顏色佳麗, 髮長九尺, 王愛之, 將立以爲小后, 王后椽氏恐其專寵 …… 後王獵于箕丘而還, 夫人將革囊迎哭曰, 后欲以妾盛此投諸海, 幸大王賜妾微命, 以返於家, 何敢更望侍左右乎, 王問知其詐, 怒謂夫人曰, 汝要入海乎, 使人投之,
- ⑫ (同, 7년 夏4월) 國相明臨於漱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 ⑬ (同, 9년 冬11월) 以椽那明臨笏覩尙公主, 爲駙馬都尉,

위의 여러 기사는 모두 나집단 관계 사료, 주로 那集團名과 결합된 인명을 지닌 것인데 지위 및 세력 등을 시사하는 사료를 적지 않게

14) [역자 주] ‘貫’는 『삼국사기』 원문상 ‘貫’이다.
 15) [역자 주] 원문의 ‘穆婁’는 『삼국사기』 원문상 ‘穆度婁’이다.
 16) [역자 주] 『삼국사기』에 따르면 ⑦의 사건은 冬10월에 발생하였다.
 17) [역자 주] 원문의 ‘掾那’는 『삼국사기』 원문상 ‘四掾那’이다.
 18) [역자 주] 원문의 ‘椽那’는 『삼국사기』 원문상 ‘椽氏’이다.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사가 편년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중에는 기사 내용도 허구인 것이 있겠지만, 설령 그러한 기사라도 나집단의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사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이다. 그럼 위의 기사에 보이는 나집단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점부터 고찰하여 보자.

(1)	人名에 관칭된 예	(가) 那 글자만 첨가된 것 - 貫那于臺彌儒(①), 桓那于臺蔘支留(⑤⑥), 沸流那皂衣陽神, (貫那沛者彌儒)(⑥), 椽那皂衣明臨答夫(⑦), 椽那明臨笏觀(⑬)
		(나) 那에 部 글자를 더한 것 - 貫那部沛者達賈(③), 桓那部沛者薛儒(④)
		(다) 部, 那 글자가 첨가되지 않은 것 - 沸流沛者陰友(⑬ ¹⁹)
		(라) 특수한 것 - 王后椽氏(⑩), 貫那夫人(⑪)
(2)	지역명 혹은 집단명의 예	椽那部(①), 藻那(③), 朱那(④), 椽那(⑨)
(3)	官名的인 것의 예	沸流部長(②)

위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집단명은 인명에 관칭되어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의하면 당시 인명의 完稱은 某那·爵官·名이라는 형식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 [역자 주] 원문의 ‘⑬’은 ‘⑫’의 오키인 듯하다.

某那의 아래에 部字를 더한 某那部라는 예는 얼마 안 되는데, 아마도 한자의 部를 쓸데없이 더한 것으로 고유의 옛 형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인명에 관칭되어 있는 데서 나집단명이 氏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유추로, 추측컨대 이로 인해 椽那 출신의 왕후를 椽氏 등으로 史家は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那名을 氏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러한 생각은 그저 인명을 보고 한 단순한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IV. 나집단과 원시정치협동체

인명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나집단명은 몇 개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데, 그 중 지역명 혹은 집단명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上揭 네 개의 사례는, 那 그 자체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히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선 朱那와 藻那是 분명히 독립된 小王國으로 고구려왕의 토벌되어 복속하였다. 각각 그 왕 혹은 왕자가 高句麗軍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 朱那王의 경우는 「虜其王子乙音, 爲古鄒加」라고 하므로, 사로잡혔다고는 하여도 고추가와 칭호가 수여된 것을 보면 그 대우가 대단히 후하다. 『위지』에 의하면 「王之宗族其大加皆稱古鄒加」라고 하고, 또 고구려본기에서 古鄒加를 칭하고 있는 예를 보면, 그 사례의 수는 적지만, 예를 들어 태조대왕의 출자를 기록한 조에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미천왕 즉위조에 「美川王諱乙弗, 西川王之子古鄒加咄固之子」 등이 보이는데, 모두 王子에 수여된 爵官이다. 또 『위지』에 의하면 나집단 중에 왕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消奴部와 絶奴部가 이 爵官號를 칭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나국의 왕자 乙音이 고추가를 칭하였다는 것은, 고구려의 宗族 혹은 그에 필적하는 대우를 받았던 것이라고 해야 한다. 즉,

나집단의 일레인 朱那나 藻那는 원래 小獨立王國이고, 이른바 하나의 정치적 협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며, 그것이 고구려왕의 지배하에 속하며 또한 유력한 지위를 수여받았다.

이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혹은 토벌되고 혹은 來服하게 된 소독립적인 정치집단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및 그들이 이 주나, 조나 등과 대동소이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고구려본기에 의거하여 약간의 예를 들어보자.

多勿國 - 沸流水上에 있었던 나라로 비류국이라고도 하며, 전설에 의하면 그 왕 송양이 고구려 시조 주몽에게 토벌되고, 그 땅을 多勿都(多勿國)로 삼고 송양을 봉하여 多勿侯로 삼았다. 다물의 語義에 관하여 고구려본기는 『麗語謂復舊土爲多勿, 故以名焉』이라 기록하고 있다.²⁰⁾ 多勿의 勿은 고구려 옛 지명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忽, 骨(kol, klol, hol)에 통하는 借字로, 『위지』 고구려에 名城을 溝瀆라 한다는 데에서 그 어의는 미루어 알 수 있다. 혹은 왕의 국토를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른다. 多勿이 고구려본기가 말하는 것처럼 復舊土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多是 復舊를 의미하는 土語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다물국은 옛 名城이었던 듯하고, 일찍이 유력한 하나의 정치적 집단의 중심이었음을 살필 수 있으며, 복속 후에도 유력한 封國으로서 존속하여 이 다물후의 딸이 제2대 유리왕의 妃가 되어 제3대 대무신왕을 낳았다.²¹⁾ 물론 전설시대의 所傳이지만, 비류국의 후신인 다물국의 지위를 시사하는 所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물도와, 주몽이 비류국의 忽本 서쪽 山上에 도읍을 세웠다²²⁾고 하는 忽本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또한

20) 高句麗本紀, 始祖 卽位條, 2年 夏6月條.

21) 高句麗本紀, 琉璃明王 2年 秋7月, 大武神王 卽位條.

22) 好太王碑文.

비류국과 후의 나집단의 하나인 沸流那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일체 明瞭性이 결여되어 있다.

曷思國 - 부여왕 대소가 戰死한 후, 그 동생이 從者 백여인을 데리고 압록곡 曷思水濱으로 와서, 出獵中이던 해두왕을 죽이고 그 백성을 취하고, 여기에 도움을 정하여 갈사왕이 되었다.²³⁾ 갈사왕의 손녀는 대무신왕의 次妃가 되어, 비극의 왕자라고도 할 호동을 낳았다.²⁴⁾ 갈사왕의 손자 도두의 때 나라를 들어 고구려에 항복하고, 大臣級이라 할 만한 台于²⁵⁾의 관위를 수여받았다.²⁶⁾

蓋馬國 - 대무신왕에게 토벌되고 그 땅은 군현이 되었다.²⁷⁾

句茶國 - 개마국 토벌에 이어 구다국왕이 나라를 들어 來降하였다.²⁸⁾

東沃沮 - 고구려는 동옥저의 땅을 취하여 성읍으로 삼고 拓境하였다.²⁹⁾

이상의 여러 사례는 모두 전설시대의 所傳으로 사료적 가치는 결핍되어 있고, 또한 그 중에는 史家の 假作도 있겠는데, 다물국이나 갈사국 등의 이야기는 유력 협동체의 起源傳說이었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전설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역시 당시의 고구려 국가조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는 위의 사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구려국의 발전과정에서, 다물국이나 갈사국의 사례와 같이 왕을 받드는 소협동체가 혹은 토벌되고 혹은 병합되었고, 한편으로 그 안의 유력한 자는 고구려왕과 혼인관계를 맺고, 또한 귀족으로서 官爵을 받았던 것이

23)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5年 夏4月條.
24)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5年 冬11月條.
25) [역자 주] 원문의 ‘台于’는 ‘于台’의 오키인 듯하다.
26)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16年 秋8月條.
27)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9年 冬10月條.
28)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2月條.
29) 高句麗本紀, 太祖大王 4年 秋7月條.

다. 이 점, 앞서 朱那·藻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이들 來附한 소정치체적 협동체가 일종의 봉건적 구성에서 고구려국을 조직하고 있었다.

라고 추측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물국 등 國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나집단이라고 생각하여도 좋고, 또한 王이라는 支那式 譯語보다도 大加 혹은 古雛加 등 토어풍의 칭호로 부르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고구려 초기 이 정치적 소협동체는 대가 즉 유력 귀족의 지배에 속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때로는 『후한서』 句驪傳에서 「光武 …… 二十二年冬, 句驪蠻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이라 하듯이, 대가들이 庶民을 이끌고 고구려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각건대,

고구려 국가의 초기 발전은 나집단을 통합하여 가는 과정에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합되고 혹은 來附한 소정치협동체는 모두 고구려 국가의 조직상 那로서 소후국적 지위에 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둔 것은 특정 집단에 한하였던 것 같고, 개마국이나 동옥저는, 고구려본기에는 군현으로 삼았다거나 성읍으로 삼았다고 표현되어 있어—물론 支那式 郡縣이 행해졌던 것은 아니지만—나집단과는 다른, 직할령 방식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듯하다. 『위지』 동옥저전에,

國小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 爲使者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賦, 貂布魚鹽, 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遇之如奴僕³⁰⁾

라고 하여, 고구려가 동옥저의 땅을 지배하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고구려가 대인을 두고 使者로서 相主領하게 하였다든가, 대가로써 옥저의 租賦를 통책케 하였다든가 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대인, 대가를 파견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할적 지배를 행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하건대, 비류국을 다물도로서 그 왕 송양을 봉하여 주로 삼고, 혹은 주나 왕자 을음을 고추가로 삼았던 것과 같은 경우와, 이 동옥저의 통치는 취지를 달리 하였던 것 같다.

고구려본기에는 군현 혹은 성읍으로 삼았다는 표현 이외에, 봉하다·식읍으로 삼다·다스리게 하다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 (가)³¹⁾ 유리왕이 선비를 격퇴한 공에 따라 부분노에게 상으로 식읍을 주었다.³²⁾
- (나) 차대왕의 태자 추안에게 狗山瀨, 婁谷³³⁾ 두 곳을 주고, 봉하여 양국군으로 삼았다.³⁴⁾
- (다) 신대왕이 연나 조의 명림답부를 국상으로 삼고, 내외 병마를 주관하게 하고, 겸하여 양맥 부락을 다스리게 하였다.³⁵⁾
- (라) 신대왕은 답부에게 坐原·質山을 하사하여 식읍으로 삼았다.³⁶⁾
- (마) 동천왕은 위 장수 관구검과의 싸움에서 공이 있던 동부 밀우에게 巨谷·靑木谷을 하사하고, 하부 유옥구에

30) [역자 주] 『삼국지』에는 ‘又送其美女’ 뒤에 ‘以爲婢妾’이 있다.

31) [역자 주] 원문에서 一ロハニ 등으로 표기한 것은 번역문에서 가나다라 등으로 바꾸어 썼다. 이하 동일.

32) 高句麗本紀, 琉璃明王 11年 夏4月條.

33) [역자 주] 『삼국사기』권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2년 춘정월 기사에 따르면, 원문의 ‘婁谷’은 ‘婁豆谷’이다.

34) 高句麗本紀, 新大王 2年 春正月條.

35) 高句麗本紀, 新大王 2年 春正月條.

36) 高句麗本紀, 新大王 8年 冬11月條.

계 鴨濼杜訥河原을 하사하여, 각각 식읍으로 삼았다.³⁷⁾

(바) 봉상왕이 북부 소형 고노자가 모용의 내침을 막은 전공을 칭찬하여 爵을 대형으로 삼고, 겸하여 鷙林을 하사하여 식읍으로 삼았다.³⁸⁾

上揭의 여러 사례가, 고구려본기의 성질로부터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며, 여기에 보이는 封領·食邑 등의 용어를 건국시대의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의 발전과정이 전개함에 따라, 어느 시기에 이러한 부류의 토지 지배 형식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상 고구려가 국가 발전 중에 도처에 있는 소정치적 협동체를 통합하였을 때, 그 대우에 여러 상이함이 있었던 것을 관찰하였는데, 그 중에 那로서 취급되는 것은 특정한 역사를 가진 유력체이고, 그 영주는 국가적으로 귀족 대우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위지』에서 전하는 다섯 개의 나집단의 성립을 살필 수 있는 역사는 전혀 결여되어 있어, 오직 위에서 논한 바로부터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들 나집단은 고구려 건국의 역사와 긴밀한 발생적 관계를 지녔을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3세기 중엽에는 고구려 국가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비류나가 이 비류국과 발생적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 등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문제도 조금 명료해지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두 분명하지 않다.

V. 나집단은 소위 clan이 아니다

나집단에 대하여 『위지』가 五族이라고 誤稱하고 있기 때문인지, 나

37) 高句麗本紀, 東川王 20年 秋8月條.

38) 高句麗本紀, 烽上王 2年 秋8月條.

집단은 일부 논자에 의해 氏族 clan이라 해석되었다.³⁹⁾ 과연 그것은 clan이었을까. 우선 우리들은 clan이라는 사회조직상의 술어를 사용하는 데, 소위 clan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히 정의하여 두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술어를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 반학계에 제공되고 있는 clan의 정의를 하나 둘 참고하건대, 시로코코 로프는 북통구스의 cla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clan은 남계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의식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나아가 血緣, 공동의 칭호 및 동일 clan의 성원 간 通婚 금지 즉 外婚 법칙의 승인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집단이다.⁴⁰⁾」

북통구스족은 통구스 고유의 문화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早期文化 단계에 있으며, 또 민족적으로도 고구려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고구려의 clan 문제에 관하여도 위의 정의는 비교연구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북통구스족에 관하여 서술되고 있는 것은, 또한 널리 clan 조직 일반에도 들어맞는다. 이 정의에서도 보이듯이 clan은 혈연적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생물학적 정의를 지니지만,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각종의 사회적 기능을 지니며, 이 점이야말로 clan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말하면, 민족의 문화 진도에 응하여 각기 특징이 보이지만, 그 주요한 것은, 姓氏(clan name)를 가지고, 공동의 씨족적 제의를 실제로 실시하며, 한편 혼인 규제에 의해 성원 상호간의 결혼이(대부분은 족외혼적으로, 드물게는 족내혼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집단이 일부 논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clan이었는지 어떤 지를 그 구성 및 기능에 연관하여 고찰하여 보자. 우선 그것이 혈연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한둘의 예에 관하여 보자.

39) 池内宏 博士, 上掲論文.

40) S. M.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Northern[역자 주: Northern]-Tungus", p.120.

- (가) 부여왕의 종제가 만여 인을 거느리고 내투하였을 때, 고구려는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椽那部에 안치하였다는 前掲의 所傳이다. 안치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를 왕에 봉하였다는 것으로부터 본다면, 椽那의 귀족으로서 아마도 그 首長의 지위에 두고, 그의 從屬者는 庶民으로 주저하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여의 사회 및 국가 조직으로부터 생각하면, 왕의 종제가 이끈 만여 인은 그의 지배하에 속하고 있던 庶民이며, 물론 통솔자의 혈연자들이 아니다. 또한 그것이 椽那에 배치되었다고 한다면, 재래의 椽那의 성원과 저들이 혈연적인 연결을 지니고 있었을 리 없다.
- (나) 갈사국에 관하여도 같다고 생각되니, 대소왕 동생이 從者 백여 인과 함께 압록곡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그 백성을 영유하여 갈사국을 세웠다.
- (다) 대신 구도, 同 일구, 同 분구 등 3인의 비류부장을 그 만두게 하고, 남부 사자 추발소를 부장으로 삼았다. 이것도 부장 즉 「那의 長」이 왕명으로 교체되고, 한편 추발소는 비류나의 혈연적 족장이 아니었던 것을 알릴 수 있다.

위는 모두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바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도, 나집단의 개념에 반하는 전설이 성립할 리는 없다. 내가 찾으려는 것은 개개의 사실이 아니라, 나집단의 개념이니, 위의 사례로부터,

나집단이 순수한 혈연단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개념적으로 推斷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집단이 족외혼적이든 족내혼적이든, 상호 혼인집단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할까. 이 점에 관하여 『위지』가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難(加)之號」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특

히 주의를 끈다. 즉 절노부와 왕 즉 계루부와의 혼인이 늘 반복되었던 규제적인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위지』의 성질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위지』 사료가 수록된 당시, 즉 고려왕 位宮의 시절, 우연히 한두 대 간에 왕과 절노부와의 혼인관계가 현존하였던 것에 따라 상기와 같은 기사가 지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고구려의 사회조직에 기초를 둔 族制的 현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고구려 왕권의 성질로부터 말해서 위의 혼인관계는 정권적 성질의 것이었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위지』와 같은 외국인의 기록은, 他族社會의 혼인관계와 같은 족제적인 것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킬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자기의 입장에서 他族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고로 왕과 절노부와의 혼인관계도, 이러한 의미에서 정권적 성질의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위지』가 주의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전통적 族制에 관한 報告로서는, 『위지』보다도 고구려본기 쪽이 오히려 사회적 사실을 보다 잘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왕족과 나집단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자.

- (가) 琉璃明王二年秋七月, 納多勿侯松讓之女, 爲妃,
- (나) 同, 二年冬十月, 王妃松氏薨,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以下略)
- (다) 同, 二十四年秋九月, 王田于箕山之野, 得異人, 兩腋有羽, 登之朝, 賜⁴¹⁾羽氏, 俾尙王女,
- (라) 大武神王十五年夏四月, 王子好童, 於⁴²⁾於沃沮, 樂浪王崔理出行, 因見之, 問曰, 觀君顏色, 非常人, 豈非北國神王之子乎, 遂同歸, 以女妻之, (以下略)
- (마) 同, 十五年冬十一月, 王子好童自殺, 好童王之次妃曷思王孫女所生也, (以下略)

41) [역자 주] 『삼국사기』 원문상 賜 다음에 姓이 있다.

42) [역자 주] 원문의 ‘於’는 『삼국사기』 원문상 ‘遊’이다.

- (바) 太祖大王諱宮, 小名於漱,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母太后扶餘人也, (以下略)
- (사) 故國川王二年春二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 (아) 山上王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
- (자) 東川王 或云東襄 諱憂位居, 少名郊毳, 山上王之子, 母酒桶村人, 入爲山上小后, 史失其族姓,
- (차) 中川王 或云中壤 諱然弗, 東川王之子, …… 立爲王太子, 二十二年秋九月王薨,⁴³⁾ 冬十月, 立椽氏爲王后,
- (카) 同, 四年夏四月 …… 貫那夫人顏色佳麗, 髮長九尺, 王愛之, 將立以爲小后, 王后椽氏恐其專寵 ……(以下略)
- (타) 同, 九年冬十一月, 以椽那明臨笏觀尙公主,
- (파) 西川王二年春正月, 立西部大使者于漱之女爲王后,

이상도 또한 전설적 사료에 지나지 않지만, 고구려왕의 혼인관계 기사를 문제가 되는 시대의 고구려본기에서 摘出한 것이다. 이에 의해 보아도 고구려왕이 대대로 특정한 나집단의 여자와 혼인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은, 그 경향조차 看取할 수 없다. 『위지』가 絶奴部世與王婚이라 기록하였던 것은 동천왕 때의 것일 텐데, 동천왕 대 및 그 이전에서 왕이 혼인관계를 맺은 상대는 주통촌인, 제나부, 부여인, 갈사왕, 한인, 골천인, 다물후 등이며, 규제적 편린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혹 어떤 이는 논할지도 모른다. 즉, 위의 기사는 모두 假作된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결국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설령 그 모두가 가작되었다고 하여도, 혼인 규제와 같은 사회적 전통 전승의 하나인 전설이야말로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규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다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위와 같은 기사로부터 그러한 문제의 참고를 얻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絶奴部世與王婚」이라는 『위지』의 기사를 혼인에 관한 사회적 규제라고 해석하는 경우, 그것을 방증하는 것을 고구려본기 내에서는 편린조

43) [역자 주] 『삼국사기』 원문상 王薨 다음에 太子即位가 있다.

차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구려본기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말한다면, 왕과 특정 나집단 출신 딸과의 혼인은, 후에 상론하는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 상대를 달리 하고, 한편 그 관계는 족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적 성질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 고로 이러한 의미의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지』의 기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고찰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나집단이 일종의 고대사회적인 혼인집단으로서 클랜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집단이 혈연단체가 아니었다는 上述의 특질로부터 생각하여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나집단이 clan이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기능으로서 同祖信仰에 기초한 제사단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나집단의 제사에 관한 기사로는, 『消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이라는 『위지』가 전하는 부분이 주의된다. 그런데 이 기사는 각 나집단의 제사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노부 고추가의 특권으로서 왕에 준하는 제사를 할 수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나집단의 제사적 기능에 관한 보고로 볼 수는 없다. 고구려본기 쪽에서는 이 방면의 기사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사료의 결여를 반드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는 한데, 사료가 없는 이상 무엇도 고찰할 수 없다.

VI. 那의 原義

혈연적 집단인 clan의 현저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姓氏

(clan name)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집단은 clan的 外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나집단명이 인명에 관칭되는 관습으로써 본다면, 더욱 그 인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러한 나집단명이 순수한 성씨인지, 혹은 또 단순한 성씨적 外면에 지나지 않는지, 이 점의 고찰이야말로 나집단의 본질을 이해하는 요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혈연집단명인 성씨에 관하여 한 번 고찰해 둘 필요가 있다. clan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을 나타내는 성씨를 반드시 지니고 있지만, 지연집단도 또한 성씨와 비슷한 집단명을 지니고 있다. 이 혈연집단과 지연집단은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집단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혼동되기 쉽다. 골든와이저(Goldenweiser)가 지적하듯이,⁴⁴⁾ 다수의 사회집단 내에서 성씨적 이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지연집단과 clan 뿐이었고, 가족과 같은 경우도 초기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니지 않는다.

이때 고구려의 나집단명이 姓氏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나집단이 clan 이외의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하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며, 일단 그것이 지연집단은 아니었는지를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나집단의 성립과정을 고찰하여 보아도 혈연집단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들이 많으므로, 성씨풍의 나집단명에 관하여도 위의 관점에서 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을 의미하는 那라는 토어는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 말일까. 이 어의에 관하여 시라토리 박사는,

「이 四部の 말미에 덧붙인 奴는 별도의 한 단어로 방위를 나타내는 토어이다. 조선어에서는 사방을 나타낼 때 nyök이라는 말이 있다. …… 생각건대 이 nyök은 고구려의 奴와 동어이다.」

44) A. A. Goldenweiser[역자 주: Goldenweiser], "Early Civilization", p.245.

라고 해석하였다. 또 박사의 방위설은 絶(奴)·順(奴)·涓(奴)·灌(奴)을 각각 後·左·右·南을 의미하는 토어라는 주장으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중앙부에 있었던 桂婁部에 이 방위를 표하는 那(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지 않은 것을 그 방증으로 여기고 있다.⁴⁵⁾ 이마니시 류(今西龍) 박사는,

「무슨 那라고 하는 것이 부족의 명칭인 것은, 위지의 기사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⁴⁶⁾」

라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위지』의 五族의 族字로부터 那(奴)를 부족으로 해석한 것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박사의 소위 部族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지 이 점이 꼭 명료한 것은 아니다. 이케우치(池内) 박사는,

「위지에 기재된 문장의 내용에 의하여 오족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것은 삼국시대 전후에 걸쳐 고구려족 사이에 존재하였던 clan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고구려는 부여족의 일부가 남하하여, 한의 眞番郡을 무너뜨리고 修佳·鴨綠 두 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clan의 제도는 이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部名의 아래에 덧붙여진 위지의 『奴』 즉 고구려본기의 『那』는 clan을 의미하는, 방위와 관계없는 고구려어였던 것이 아니겠는가.⁴⁷⁾」

라고 하여 새롭게 clan說을 주장하였다. 이들 세 선학의 주장 중, 시라토리 박사의 방위설은 那(奴)의 언어적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케우치 박사의 clan설은 『위지』 기사의 주관적인 해석으로부터 나아가 那(奴)의 어의를 추정한 것이다. 만약 那에 clan의 原義가 있다고 한다

45) 白鳥庫吉 博士, 「丸都城及國內城考」.

46) 今西龍 博士, 「高句麗五部考」, 『朝鮮古史の研究』, 419쪽.

47) 池内宏 博士,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면 그것을 예증할 필요가 있는데, 박사는 이 점에 대해 하등 지적한 바가 없다. 나는 박사의 추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면의 짐작되는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결론은 역으로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계통이 가까운 민족 중에서, clan조직이 완전히 행해져 있는 북통구스에 관하여 보건대, 시로코로로프의 探訪⁴⁸⁾ 자료에 의하면, 북통구스계의 諸族 사이에는 공통한 일정의 clan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고, 인접 제 민족으로부터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만주어 xala로부터 차용한 xala, kala, kāla, 같은 만주어 mokun으로부터 차용한 mokun, mukun, 몽골어 omok으로부터 차용한 omok, omoγ, ewen-omuk, 같은 몽골어 jas(jasun)-a generation, tribe, bone-로부터 차용한 jasan(the name of a clan), 기타 야쿠트어로부터 차용한 말 등이 있다. 참고로 만주족에 대하여 말하자면, xala 및 mokun은 비교적 새로운 외래 용어이며, 또는 gargan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예전에는 aiman이라는 말이 쓰였다. 북통구스의 clan을 의미하는 현행어는 위와 같이 차용어인데, 시로코로로프는 북통구스의 옛 씨족명의 접미어에, -gir(-yir, -jir), -git(-gat, etc.), -gin이 함께 쓰이는 점에 주목하여, 이 말이 북통구스 고유의 가장 오래된 clan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추론하였다. 이상 지적한 고구려와 계통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족 내지는 인접 민족 사이에서 clan을 의미하는 新舊의 여러 단어 중에는, 문제의 고구려 那에 계통 지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적어도 管見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那를 어원적으로 clan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論定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다시 那의 원의에 관하여 다른 방면에서 고찰을 나아가

48) S. M. Shirokogoroff, Ibid., pp.120~122.

보건대, 우선 고구려의 옛 지명에 이 말을 어미에 지닌 것이 적지 않은 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前掲 朱那·藻那도 그 예지만, 다음과 같은 옛 지명이 발견된다. 즉 호태왕비명 중 옛 지명에,

豆奴城, 閏奴城, 貫奴城, 巴奴城, 散那城

등이 보이니, 이들은 광개토왕에게 新附한 한강 유역 및 강원도 방면의 여러 성인 듯하고, 同王의 묘지기로서, 豆奴城 國烟 1, 看烟 1을, 閏奴城은 國烟 2 都烟 22, 巴奴城은 韓人 9家의 看烟을, 散那城은 國烟 1을 각각 내고 있다. 이들은 무슨 奴城이라 하여 城 글자를 덧붙이고 있는데, 물론 城塞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城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境域을 의미함을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삼국사기』 소재 지명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今勿奴. 『黑壤郡 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 景德王改名. 今鎭州, 鎭縣二.』 今勿은 현재 음에서는 “금물”⁴⁹⁾(keummur)이다. 黑은 현재 訓 “검을”⁵⁰⁾(köm-eur), 『훈몽자회』 “겨물흑”(kö-meur, heuk)이다. 즉 今勿은 黑의 옛 훈을 나타낸 것이며, 奴·壤은 동어의 借字이다.

仍伐奴. 『穀壤縣, 本高句麗仍伐⁵¹⁾縣, 景德王改名, 今黔州.』 穀壤縣은 栗津郡(本高句麗의 栗木郡)의 속현이다. 仍伐의 伐은 “벌”(pör)의 訓借인데, 仍은 “잉”(ing)이라 읽는 듯하고, 『陰城縣, 本高句麗仍忽縣』 등과 陰·仍이 통용되고 있으므로, 仍伐은 in-pör이라 읽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備字 상에서는 仍伐은 穀의 옛 훈을 나타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49) [역자 주] 원문에서 한글로 표기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번역문에서는 큰따옴표(“”)를 붙여 표시하였다. 이하 동일.

50) [역자 주] 원문의 ‘검을’은, 冬을 “겨을”(kyö-eur)이라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을’의 오기인 듯하다.

51) [역자 주] 『삼국사기』 원문상 仍伐 뒤에 奴가 있다.

骨衣奴. 『荒壤縣, 本高句麗骨衣奴縣, 景德王改名. 今豐壤縣.』
『삼국사기』는 本縣을 漢陽郡(本高句麗 北漢山郡)의 속현이라
하고 있다. 骨衣는 “골의”(koreui) 혹은 “골이”(kori)라 읽고, 荒
을 大의 뜻 “클”(kieur)로 혼동한다면, 骨衣와 骨은 유사하다.

尉那巖. 『(始祖)⁵²⁾二十一年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
之, 至國內尉那巖得之, …… 返見王曰,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 則不唯
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同)二十二年冬十月, 王遷
都於國內, 築尉那巖城,』(고구려본기)

이상의 사례에 의하여 奴(那)가 壤字에 따라 借訓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밖에 奈行의 類同음을 나타내는 차자로서 內·耐
·而·川·買·惱·穰을 비롯하여 여러 글자가 사용되고 있다.

今勿內. 『今勿內郡 一云萬弩.』 이 今勿內는 前提⁵³⁾의 今勿奴
와 동명이다.

骨衣內. 前掲의 骨衣奴와 동명이다.

於斯內. 『於斯內縣 一云斧壤,』 於斯는 “어사”(ö-sa) 혹은 “어
시”(ö-si)라 읽고, 그 훈차자인 斧는 『훈몽자회』에는 “도치
부”(to-ch'ai) 현재 훈으로는 “독기”(tok-ki)인데, 고구려의 古
語에서는 於斯에 가까웠던 듯하다. 또한 於斯內는 다른 지명
於斯買와 동명이다.

國內城. 앞의 國內尉那巖城인데, 『위지』 관구검전에서는 國
內城에 紀功碑를 세운 것을 『刊丸都之山, 銘不耐之城』이라 하
므로 不耐와 尉那는 동어를 轉寫한 것으로 생각된다.

不耐(濊). 『위지』 예전에 『七縣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
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正始六年, 樂浪太守劉

52) [역자 주] 원문의 ‘始祖’는 유리왕[원문에 따르면 琉璃明王]의 오기인
듯하다.

53) [역자 주] 원문의 ‘前提’는 ‘前掲’의 오기인 듯하다.

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興師伐之，不耐侯等舉邑降，其八年詣闕朝貢，詔更拜不耐濊王，居處雜在民間，四時詣郡朝謁」이라 하여, 漢魏의 句麗에 예속되어 있던 濊族의 渠帥가 句麗으로부터 不耐侯 혹은 不耐濊王으로 불렸다. 不耐의 耐는 內·奴와 같은 借字이며, 이 濊 渠帥의 땅이 不耐라 불렸던 것이다. 또 그것이 고구려의 國都였던 不耐와 동명인 것도 주의해 두어야 한다.

松讓王.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비류국의 왕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松讓이라는 지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松이 扶蘇岬[松岳], 夫斯波[松峴], 夫斯達[松山] 등의 용례로 보아 扶蘇·夫스로 읽혔다고 한다면, 松讓은 pus-na이고, 松을 혼독하여 “솔”(sor)이라면 sar-na이다. 松讓이 그 이름으로부터 보아도 나집단이었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槐壤. 「槐壤郡, 本高句麗仍斤內郡, 景德王改名, 今槐州.」槐는 『훈몽자회』에 의하면 “회⁵⁴화[hoi-hoat], 현재는 “회화”(hoi-hoa)인데, 통상 俗訓으로 “늦희”(neut-heui) 혹은 “느티”(neu-téui)에 해당된다.⁵⁵⁾ 仍斤의 읽는 방법은 분명하지 않은데, 槐의 속훈 neu-teui에 유사한 고구려어라고 추정된다.

金壤. 「金壤郡, 本高句麗休壤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休壤郡 一云金惱.」壤·惱는 같은 훈음차자. 金·休도 선학이 지적한 바와 같이,⁵⁶⁾ 혼독에 의한 근사음을 차용한 것이다.

위 외 壤字를 덧붙인 지명은, 本紀, 諸志 여기저기에 적지 않게 보이고 있고, 또 호태왕비에서는 平穰城·彡穰城 등 穰字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 예를 들어 보인 바에 의해, 奴·那를 비롯한 內·壤 등의 同語는 지명어미에 관용되는 단어이고, 특히 朱那國·國內城·不耐侯·松

54) [역자 주] 원문의 ‘회화’는 『훈몽자회』 원문상 ‘회화’이다.

55) 鮎貝房之進 著, 『雜攷』3, 152~153쪽.

56) 坪井九馬三 博士 著, 『我が國民國語の曙』, 442쪽.

讓王 등의 예로부터 본다면, 고대국명 혹은 王城名의 어미로서 쓰이고 있다. 카나자와(金澤) 박사가 任那(미마나)國의 那를 國의 뜻으로 풀이하고, 만주어의 na 즉 「ba na 滿洲語地方也」(遼史語解卷2), 「na 地」(三合切音 淸文鑑天文類)를 인용하여, 동아시아 대륙의 na 즉 諸國語 내에 그 類例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구려의 那도 그 동계어인 것을 부언하고 있는데,⁵⁷⁾ 매우 시사적인 교시이다. 게다가 자료를 찾아보면, 여진어나 현행 통구스어에도 동계어를 볼 수 있다.

地 納 (納) na⁵⁸⁾

Na 地 土地⁵⁹⁾

na (Man. Sp. Writ.) the earth

nai (Man. Sp. → Writ.) - of earth, earthly.

naixan (Man.) - the khan of Earth.⁶⁰⁾

즉,

那는 본래 土地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고구려에서 관용되는 문제의 那에서는 한정된 의미가 추측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那·壤의 借字에 川·買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 王名으로 中川王(或云中壤), 西川王(或云西壤), 美川王(或

57) 金澤庄三郎 博士 著, 『日鮮同祖論』, 167쪽.

58) 渡部薰太郎氏 著, 『女眞語の新研究』, 類集女眞譯語, 第2 地理部.

59) 羽田亨 博士 編, 『滿和辭典』, 321쪽.

60) Shirokogoroff, S. M.,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Glossary. 또한 인용문 중의 略語 및 발음 備字는 다음과 같다. x—ch as in German “Bach,” and x as in spanish[→[역자 주] Spanish]. ; Man. Sp.—the Manchu Language as spoken by the Manchus of the Aigun District in Manchuria. ; Man. Writ.—reading of the Manchu writen, as recorded in the Aigun District.

云好壤) 등이 그 예이며, 지명의 傭字例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南買 「南川縣 一云南買.」

於斯買 「橫川縣, 一云於斯買.」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씨는 橫에 관하여, 「橫은 句驪에서 es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하는 öt, öt-mök-ta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⁶¹⁾

買忽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買 · 水가 통하여 쓰이는 예이다.

이들 문자의 借用例에서 추측할 때,

那是 水邊의 土地를 일컫는 듯하다.

그런데 이른바 그러한 토지는 고대생활집단의 주지이며, 고대 部族國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생각하여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奈에 陰 즉 水南山北의 의미를 대응하고 있는 것은, 奈가 水邊 계곡의 주거지역을 의미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冬音奈 「江陰縣, 本高句麗冬音奈縣, 景德王改名, 在穴口島內, 今河陰縣.」 江은 『훈몽자회』에 의하면 “ㄱ롬”⁶²⁾(ka-ram)으로 혼독되고, 冬은 “겨을”(kyö-eur)이라 혼독되며, 또 音은 신라 차음 예에서는 “口”(m) 음을 나타낸다.⁶³⁾ 고로 冬音은 kyö-eurm이라 읽히며, 江의 혼 ka-ram에 통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고구려에서는 양자가 보다 근사한 읽기 방식이었을

61) 『我が國民國語の曙』, 446쪽.

62) [역자 주] 원문의 ‘롬’은 『훈몽자회』 원문상 ‘롬’이다.

63) 小倉進平 博士, 『郷歌及吏讀の研究』.

것이다. 奈에 陰을 해당시킨 것은 동의어의 轉用일 것이다.

那의 원의를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위지』가 「隨山谷以爲居」라 하고, 혹은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 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이라 하여 고구려 諸族의 국가형성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도, 흐르는 물을 따라 계곡에 소국을 경영하고 있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류수 상에서 송양왕이 나라를 경영하고, 갈사왕이 압록곡 曷思水濱에 나라를 세웠던 것도 그 예이며, 또 압록강 중류 유역의 고구려 왕성이었던 국내성(불내성)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점에 대해, 북통구스족의 민족구성단위의 형성과정과 비교하건대, 시로코고로프는 그 단위의 이름에 관하여, 「통구스가 새로운 단위를 형성할 때에 “living up the river”, “living down the river” 등과 같이 공통의 관념에 유래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에, 그 이름에 부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⁶⁴⁾

VII. 나집단의 부족적(tribal) 성질

那의 원의가 고대소국가가 경영하는 계곡의 지역을 의미하였다는 언어상의 해석은, 앞서 나집단이 고대정치공동체였다는 추론과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집단은 고대소국가적 기능을 지닌 지연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연집단은 통상 그 크기와 발달의 정도에서 band(部落), tribe(部族), state(國家)라는 식으로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데,

문제의 나집단은 tribe(部族) 혹은 원시적 소국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이다.

64) S. M. Shirokogoroff, Ibid., p.122.

지연집단은 일정 지역에 경제적, 방어적 목적으로써 협동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씨족적으로는 복합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하나의 부락이 하나의 씨족으로부터 성립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특별한 예이며, 부족에 이르러서는 씨족적으로 늘 복합적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공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부락의 인구는, 농경 부락에서도 상한은 300~400인이고, 통상 100~150인 정도라는 것이 실상이므로, 나집단은 부락보다도 훨씬 유력한 것이며, 부족 혹은 원시소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각 나집단의 크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拔奇의 반란 사건을 기록한 조에서 『위지』는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康降, 還住沸流水,」라고 하니, 消奴加 즉 소노집단의 수령에 下戶 즉 庶民 3만 口가 속하고 있었던 것을 살필 수 있으며, 또한 전설적 사료이지만, 前揭한 부여왕 종제가 만여 인으로써 내투하고 연나부에 안치되었다는 것 등을 참고하여도 좋을 것이다. 『위지』가 마한 50여 국에 관하여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라 하고, 변진 兩韓 24국에 관하여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라 하였는데, 고구려의 나집단은 그 성질에서도, 또한 크기에서도 대체로 韓族의 소위 國(國字는 中國文獻이 멋대로 붙인 것이지만)에 상당하는 것이었다고 유추하여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지연적 정치협동체가 국가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이전의 모습을, 고구려의 同系族이었던 옥저, 예 등을 대상으로 보자면,

「東沃沮 …… 土肥美, 背山向海 …… 有邑落長帥, 人性質直疆勇, 便持矛步戰」⁶⁵⁾

「濊 ……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 邑君, 三老, 統主下戶,」,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⁶⁶⁾

65) 『後漢書』, 東夷傳.

66) 『魏志』, 東沃沮·濊傳.

등이라 하고 있다. 「其俗은 山川을 重히 여기고 山川에 각각 部分이 있다」는 것은, 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명료하지는 않지만, 아마 읍락 사이에 영역점유권이 확립되어, 서로 步入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른바 長帥-漢魏의 군현으로부터 侯, 邑君, 三老 등의 관명을 하사받은-의 통제 하에 있는 읍락은, 일정 영역을 점유하는 큰 band 혹은 tribe의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연집단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영역의 점유, 원시적 정치기능, 경제적 기능, 공동방어적 군사기능이며, 대체로 말한다면 원시소국가적 존재로, clan과는 그 성능을 자연 달리하는 것이다. 시로코고로프는 북통구스의 사회적 사실로부터 귀납하여 clan과 tribe를 구별하고, 전자가 지역적이지 않은 데 반하여 후자가 지역적임을 논하고, 다음과 같이 영역점유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氏族, 家族 내지 個人은 토지 즉 영토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구스의 민족적 구성단위(ethnical units)를 이루는 여러 씨족집합체가 사용하는 境域의 세습적 점유의 관념은 충분히 발달하여 있다. 이 점유는, 『부족적 재산 tribal property⁶⁷⁾』이라 칭하여도 좋겠지만, 물론 그것은 편의적인 명칭이다. 그 이유는 『부족 tribe』이라는 단위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영토는, 그것을 불규칙으로 점거하고 있는 여러 씨족의 집단에 소속하고, 그보다는 해당 집단에 영구히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씨족 혹은 민족단위가 무력 내지는 침투에 의해 그들로부터 그 토지를 탈취하려는 때에는, 해당 氏族團은 가능한 한 그 점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 …… 오늘날 씨족영토라는 관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민족단위에 의해 영유되고 있는 영토 및 내가 편의적으로 부른 부족영토라는 관념이 행해져 있다.」⁶⁸⁾

67) [역자 주] 원문 ‘propery’는 ‘property’의 오키인 듯하다.

68) S. M. Shirokogoroff, Ibid., p.294.

예족의 「山川各有部分 云云」이라는 토지점유의 사정을 이해하는 참고가 되는 주장이다.

옥저 및 예의 漢魏郡縣 이전의 상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지방 군현의 성쇠 및 그 통치 형식을 돌이켜 볼 때, 이들 제 부족의 활동을 생각하여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즉 漢은 무제의 원정에 의해, 이 방면에 四郡의 하나인 현도군을 두고 옥저 지역을 통치하였는데, 그 후 군현통치 추이를 다음과 같이 略記하고 있다.

「後爲夷貊所侵，徙郡句麗西北，今所謂玄菟故府是也，沃沮還屬樂浪，漢以土地廣遠，在單單大領之東，分置東部都尉，治不耐城，別主領東七縣，時沃沮亦皆爲縣，漢光武六年省邊郡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夷狄更相攻伐，不耐濊侯⁶⁹⁾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皆濊民作之。」⁷⁰⁾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自領以東七縣都⁷¹⁾主之，皆以濊爲民，後省都尉，封其渠帥爲侯，今不耐濊皆其種⁷²⁾，漢末更屬句麗。」⁷³⁾

즉 漢은 領東七縣 分治 이후에는, 직접 지배보다도, 옥저·예의 거수를 縣侯에 봉하여 자치적으로 이것을 통치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종류의 후국으로서 불내, 화려, 옥저 등이 저명하였다고 한다. 그 중 불내 후국이 가장 유력하였던 듯하고, 또한 불내의 이름이 고구려의 國內城(不耐城)과 동명인 것, 불내의 名義에서 그것이 유력한 나집단이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들 漢의 후국은, 漢의 세력이 쇠퇴하자 고구려의 세력 하에 속하였다. 魏 正始 6년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고구려 원정 때, 낙랑, 대방 방면으로부터의 魏軍은 영통의 예족을 토벌

69) [역자 주] 『삼국지』 원문상 不耐濊侯 앞에 唯가 있다.

70) 『後漢書』, 東沃沮傳.

71) [역자 주] 『삼국지』 원문상 都 뒤에 尉가 있다.

72) [역자 주] 『삼국지』 원문상 種 뒤에 也가 있다.

73) 『魏志』, 濊傳.

하여 불내후를 항복시키는데, 이에 의하여 그것이 고구려 측의 유력 부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 서술한 바에 따라,

고구려 국가의 발전과 왕권의 신장 과정에서, 여러 나집단이 연합, 來附, 토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고구려 왕권 하에 속하여 대국가를 형성하여 갔다.

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중핵은 국내성에 있는 가장 유력한 나집단으로, 그것에 고구려 왕통이 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집단의 長帥는 大加라고 불리며, 일종의 봉건제후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듯하며, 그 사이의 사정을 위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諸大加亦自置使者·皂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不得與王家使者·皂衣·先人同列,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 供給之,』

그런데 나집단의 영주라고도 부를 만한 大加는, 비류국의 송양후나 갈사국의 도두, 주나의 을음 등의 예가 나타내듯이, 그 집단의 옛 영주 혹은 그 자손에 의해 계승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꼭 늘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무신왕이 大臣 구도·일구·분구 등 3인을 비류부장에서 쫓아내고, 남부 사자 추발소를 대신하여 부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나집단의 부장이 왕에 의해 임명되고, 또 부장은 반드시 해당 집단의 출신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왕권이 강력화하여, 국가가 봉건적인 것으로부터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변화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前揭 동옥저가 고구려에 신속한 것을 서술한 중에, 『위지』는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賦」라고 그 통치조직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 및 대가 중, 적어도 후자는 고구려로부터
과건된 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마니시 박사가 那의 조
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본질을 충분히 지적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五族이 부족명인 것은 위지의 기사 전체로부터 보아 추호
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하물며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바에
서도 이것을 부족명으로서 해석하는 타당함에 있어서라. 고구
려의 前期는 군현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간의 부족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족 중에서 혈통이 가장 고귀하고 실력이 가
장 강한 자가 王으로서 全 부족을 통괄하였던 것이다. 부족은
이 나라 귀족의 부족이자, 귀족은 세습적으로 토지와 이에 토
착하는 하호를 소유하여 약간의 부족으로 나뉘어, 왕의 통할
하에서 자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 중 혹 왕의 家人에
끼어 公卿大夫가 되는 자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부족의 분
열, 병합 또는 흥기, 쇠망으로, 王者에 의해 새로운 부족이 만
들어지는 일도 있었을 것이므로, 부족의 수는 시대에 따라 다
를 것이다. …… 그리고 王家의 세력이 융성 강대됨에 따라,
왕가와 다른 부족의 관계는 왕실과 봉건제후와 같은 군신관
계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을 것이다.』⁷⁴⁾

VIII. 고구려에서 성씨 성립의 시기

那의 원의 및 나집단이 자연적 부족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고구려
국가가 이러한 집단의 집합체였다는 것을 함쳐 생각한다면, 나집단의
수는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며, 또 꽤 상당한 숫
자가 되었을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지』에서 涓奴部 이
하 桂婁部에 이르는 다섯 개의 나집단을 列記하고, 『본디 五族이 있다』

74) 「高句麗五族五部考」.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실상 더욱 많아야 할 나집단을 다섯 개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지』의 기사는 고구려왕 위궁 시대의 것에 관하여는 신뢰하여도 좋다고 생각되므로, 그때까지 고구려에 다섯 개의 특정 나집단이 설정되어, 그것이 고구려국의 중핵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집단의 본질이 상술한 바와 같다고 한다면, 이 특정한 다섯 개 이외에도 적잖이 존재하였을 것은 분명하므로, 소위 五族으로 불린 특정의 것은, 고구려의 주체가 되어 있던 것인 듯 하며, 한편 이 다섯 개의 특수성은 역사적으로 유래한 것이든(즉 다섯 개 이외의 것은 후에 복속한 外樣的인 나집단이었다), 내지는 별도의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특설된 것이든, 어딘가에 기초하였을 것이다. 「본디 五族이 있다」는 문장의 필치에서 보면, 이 다섯 개의 집단은 예부터 유래한 것인 듯하고, 혹은 고구려 건국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한편 5라는 숫자는 후의 고구려 五部나 백제의 五部·五方の 제도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인위적인 제도이며, 도무지 역사적인 자연발생적으로 유래된 것처럼도 생각되지 않는다.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인명에서 那名을 관칭하는 예로부터 귀납하면, 那의 수는 다섯 개에 한정되지 않지만, 그것은 넓게 那의 소속을 나타내는 인명 칭호의 습속에 따른 것으로, 위의 五族 이외의 것도 그러한 습관에 따르는 것뿐이며, 인명에 보이는 那의 수가 다섯 개보다 훨씬 많다고 하여도, 五族이 특정되고 있던 것과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은 시대적으로 나집단의 수가 증감하였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도로서의 5라는 수는 나집단 총수의 증감과는 별개여서, 늘 다섯 개에 한정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로 五族이라는 나집단의 제도적인 연구와, 인명칭호법 상의 那名の 연구는, 그것을 혼동하지 않는 방법이 안전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면 인명칭호 상 사용되고 있는 那名에 관하여 한 마디 해 두겠다.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나명은 대부분 인명에 관칭되고 있어, 桓那

于台 蔘支留·椽那 皂衣 明臨答夫라는 식으로, 일견 나명은 성씨와 같이 보이기 쉽다. 那를 clan으로 생각하는 해석의 근거에는, 아마도 이 나명의 성씨풍의 사용이라는 것이 무비판적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인명칭호법을 자세히 점검하여 보면, 예를 들면 桓那 于台 蔘支留의 경우는, [那名], [爵官], [名]이라는 순서로 놓여 있으니, 만약 那가 성씨라고 한다면 [爵官], [那名], [名]이라는 식으로 배열되었을 것이다. 또한 椽那 皂衣 明臨答夫의 경우는, 皂衣는 爵官이고 明臨答夫는 名인데, 그 중 明臨은 明臨於湫·明臨笏觀 등이라는 一族의 인명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데에서 보면, 明臨이 성씨적인 칭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 따라서 椽那 皂衣 明臨答夫는, [那名], [爵官], [姓氏], [名]이라는 칭호적 배열이 되고 있어,

인명칭호상, 那名이 성씨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고구려의 이러한 인명칭호법과 비교하기에 적절한 것이 신라의 옛 인명칭호법으로, 예를 들어 沙喙武力智運干·漢城軍主喙竹夫智沙尺干 등⁷⁵⁾에 보이는 것과 같이 [職名], [部名], [名], [爵位]의 배열로, 沙喙·喙는 部名으로 姓氏가 아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沙喙武力智는 후에 金氏를 칭하는 일족이다.

이러한 인명에 관칭하는 나명이 성씨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각자 소속의 나집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다. 즉 출신지 혹은 그 領國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구려본기에 사람들의 출신지를 들어 某川人某·某谷人某- 예를 들어 鶻川人之女禾姬⁷⁶⁾·買溝谷人尙須⁷⁷⁾- 등이

75) 眞興王巡狩昌寧碑.
 76) 高句麗本紀, 琉璃明王 3年 秋7月條.
 77)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3年 秋7月條.

라고 하는 호칭과 비슷한 칭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那가 川·谷에 통하는 고구려의 토어인 것을 생각하면 그러한 인상이 강하다.

인명에 관칭하는 나명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다. 즉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수다한 인명 내 나명을 관칭하고 있는 자는 극히 적으니, 다하여 제2항에서 제시해 둔 것과 같다. 나명이 없는 인명은 그 소속의 나집단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수량으로 보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나명을 관칭하는 자가 특수한 자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인명에 나명을 관칭하는 자는 于台·皂衣·沛者 등 당시로서는 고위 爵官을 수여받고 있는 데에서 미루어, 특정 귀족 혹은 유력자만이 나명을 관칭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생각건대 그저 某那 출신의 귀족일 뿐만 아니라, 나집단의 영주적 유력자에 한하여 이것을 칭하였던 것은 아니겠는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적인 칭호로서의 의미를 지녔던 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명은 나집단의 지배자였던 家 내지 그에 계보를 잇는 그 일족이 관칭한 것으로, 혹은 그것이 家の 전통명까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家の 姓으로 clan名은 아니다. 이것은 나집단이 clan이 아닌 이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家の 姓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氏姓(clan)과 혼동하여 이해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왕비를 그 출신에 의해 椽氏라든가 貫那夫人처럼 史家가 假稱하게 되었던 것도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家와 clan의 본질적 구별은 사회구조나 국가의 발달과정을 논고하는 상에서는 중요한 기초개념이며, 그것을 혼동하여서는 올바른 민족사회의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지나식의 성씨가 성립된 것은 언제일까. 나명은 본래 성씨가 아니고, 또한 후대에 나명에 유래하는 성씨와 같은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점, 후기의 五部の 이름이 후대 성씨로서 사용되었던 것과 그 분위기를 달리 한다. 이 점에서 생각하면, 나명이 인명에 관칭되어 쓰이는 때는 아직 후대와 같은 방식의 성씨 개념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마땅히 그 뒤 성씨가 되어도 좋을 법

한 나명이 아직 성씨가 아니었다는 것도 지나식의 성씨 관념의 미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구려본기에는 시조의 시대로부터 성씨를 지닌 인명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史家의 追記이고 혹은 假作이다. 실례로서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姓을 지닌 인명을 점검하여 보자.

첫째, 賜姓을 특기한 것,

始祖卽位條 …… 朱蒙賜再思姓克氏, 武骨仲室氏, 默居少室氏, (참고로 말하면, 再思 이하의 3인은 건국의 공신으로서 건국전설 속에 이야기되는 전설적 인물이다.)

琉璃明王 21년 秋9월, 王如國內觀地勢, 還至沙勿澤, 見一丈夫坐澤上石, 謂王曰, 願爲王臣, 王喜許之, 因賜名沙勿, 姓位氏,

大武神王 4년 冬12월, 王出師伐扶餘, 次沸流水上, 望見水涯, 若有女人昇鼎游戲, 就見之, 只有鼎. 使之炊, 不待火自熱, 因得作食飽一軍, 忽有一壯夫曰, 是鼎吾家物也, 我妹失之, 王今得之, 請負以從, 遂賜姓負鼎氏,

同, 十五年春三月 …… 遂使南部使者鄒穀素代爲部長(沸流部의), 穀素既上任, 別作大室以處, …… 賜姓曰大室氏,

둘째, 姓氏를 특기한 것.

琉璃明王卽位條 …… 朱蒙元子, 母禮氏, 初朱蒙在扶餘, 娶禮氏女有娠,

大武神王卽位條 …… 大武神王立 …… 母松氏, 多勿國王松讓女也,

故國川王二年春二月, 立妃于氏爲王⁷⁸⁾, 后提那部于素之女也, 中川王卽位條 …… 冬十月, 立椽氏爲王后, (참고로 同王 3년 조에 왕후 椽氏와 貫那夫人의 다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故國原王十二年冬十月, (燕王皝의 내침 때) 將軍慕輿泥迫獲

78) [역자 주] 원문 ‘王’은 『삼국사기』 원문상 ‘王后’이다.

王母周氏及王妃而歸 (이 기사는 全文 『자치통감』 晉紀 顯宗
조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이상의 여러 사례 중에서, 賜姓의 기사는 대무신왕 이전에 속하는 데, 소위 전설시대이며,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매우 결여된 문헌이므로, 적어도 사성의 것은 역사시대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負鼎氏 사성은 소위 magical pot이라는 포크로어에서 유도된 탁상의 작문인 것이 명료하다. 그 다음으로 성씨를 특기하고 있는 여러 사례는 모두 王母, 王妃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중국풍의 필법-기혼 여성을 某氏로 기록하는 필법을 수사가가 모방하여 작문한 것으로, 이것도 전설시대 내지 그에 가까운 때의 기사가 많다. 다물국왕 송양의 딸-대무신왕의 어머니-을 송씨라 기록하고, 혹은 椽那 출신의 왕후를 椽氏로 기록하고, 또한 提那部 于素의 딸을 于氏(우소의 于是 성씨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작위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국원왕의 어머니를 周氏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시대에 속하며, 한편 중국문헌을 인용한 기사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통감의 문장을 그대로 再錄한 부분인데, 같은 사건에 관하여 『晉書』 載記 慕容皝 조는 「皝掘釗父利墓, 載其尸并其母妻珍寶, …… 歸」라고 기록하였고, 『魏書』 慕容元眞傳도 또한 同文이다. 참고로 釗는 고국원왕의 휘이다. 그런데 통감만이 홀로 母周氏라는⁷⁹⁾ 두 글자를 부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낮다. 이뿐만 아니라, 통감에는 후대의 追記 내지는 문장상의 作意가 많으므로, 원사료인 『진서』나 『위서』를 전거로 하는 한, 이 周氏는 史實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 사성 및 왕모, 왕비의 氏에 관한 기사가 史實性을 지닐 수 없다고 한다면, 고구려 사회에 중국식 성씨가 행해지게 되었던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러한 성씨는 우선 처음에 귀족 특히 왕족에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니, 이제 그것을 東夷諸國에 관하여 개관하여, 고구려의 성씨 성립을 고찰해 보자. 그리하여 객관성이 높은 중국문헌

79) [역자 주] 강조점은 周氏 두 글자일 듯하다.

에 보이는 고구려를 비롯하여 부여·백제·신라·가라·왜 諸國의 인명(주로 왕명만을 알 수 있는 데 지나지 않지만)을 摘出하여 연표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49쪽)⁸⁰⁾와 같다.

<표 1> 中國史籍에 보이는 東夷諸國의 왕명과 성씨

고구려 왕명	부여·백제의 왕명	신라·가라·왜의 왕명
句麗王弗利 ⁸¹⁾ (梁書) 307 A.D. - 312 高句麗釗(晉書) 339	夫餘王依慮(晉書) 285 A.D. 夫餘王依羅(同上) 286 夫餘王玄(通鑑) 346 夫餘王子餘蔚(同上) 370 百濟王餘句(晉書) 372	新羅王樓寒(太平御覽) 382
句麗王安(梁書) 395 高句麗王安(晉書) 399 高句麗王高璉(宋書) 413 長史高翼(同上) "	百濟王須(梁書) 384 百濟王世子餘暉(晉書) 386 百濟王餘映(宋書) 416 (이하 생략)	

80) [역자 주] 원문에서는 (원문상) 49쪽에서 제시되었으나, 번역문에서는 본문 바로 아래에 제시하였다.

<p>高麗王高雲(南齊書) 494 (이하 생략)</p>		<p>倭國王讚(宋書) 425 倭國王珍(同上) " 倭國王濟(同上) 443 加羅國王荷知(南齊書) 479 倭國世子興(同上) 451 倭國王武(梁書) 479 新羅王金眞興(北齊書) 565 新羅王金眞平(隋書) 594 (이하 생략)</p>
-----------------------------------	--	--

이들 諸國 왕명에 성씨가 덧붙여지기에 이른 시대는,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연도순으로 말하면, 부여(姓餘)-370년, 백제(姓餘)-372년, 고구려(姓高)-413년, 신라(姓金)-565년으로, 부여, 백제에서 가장 빠르고, 신라는 가장 더디다. 물론 왜국왕은 예외로, 讚 이하 倭五王은 성씨는 없고, 6세기 말의 사정을 전한 『수서』(『북사』도 同文)에, 「倭王姓阿每, 字多利思北孤, 號阿輩雞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神名・天皇名의 미칭인 아메를 취하여, 그것을 중국식으로 姓이라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諸國의 성씨 성립의 遲速을 발생시킨 요인으로서, (가) 사회발달의 진도, (나) 중국과의 정치적, 문화적 교섭의 정도, (다) 자국문화의 주체성, 전통성의 강도가 생각되며, 그 중 (나)는 촉진요인으로서, (다)는 억제요인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여・백제에서는 (나)가 강하고 (다)가 미약하였던 데 반하여, 왜국은 그 정반대로 특히 (다)가 강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고구려에서는 (나) 즉 중국과의 정치적 교섭이 가장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의 주체성・전통성이 억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식 성씨의 성립이 늦어, 姓高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413년 高璉 즉 장수왕이니, 아마도 고씨는 이 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혹은 413년은 장수왕의 즉위 직후 조공에 관한 기사이므로, 고씨를 칭하였던 것은 그 父王 광개토왕(諱, 談德・安)의 때였을지도 모른다. 다만 광개토왕에 관한 『진서』의 기사

81) [역자 주] 원문의 ‘弗利’는 『梁書』 원문상 ‘乙弗利’이다.

에서는 단순히 高句麗安이라고 하고, 그 연차는 399년(同王 즉위 8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감』 晉紀 安帝甲條에

『隆安元年(서기 397) 四月, 寶以高雲爲建威將軍, 封夕陽公, 養以爲子, 雲高句麗之支屬也, (이하 分註) 高句麗自云高陽氏之後裔, 故以高爲氏』

라고 보이는데, 고구려본기는 이 문장을 광개토왕 18년 춘3월조에 인용하고, 한편 「寶子之, 賜姓慕容氏,」라고 부기하고 있다. 고구려 출신의 高雲이 고씨를 칭한 것은, 대외적 관계 특히 모용씨와의 양자 결연이라는 사정으로부터 보아, 姓을 칭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高陽氏之後裔 등으로 칭하였던 것은 아니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고씨에 관하여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국외에서의 이야기로서도 광개토왕 대에 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다음 대인 장수왕이 고씨를 칭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에서 성씨의 성립은 5세기 초반이었다.

라고 미루어 판단하여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이다.

IX. 那貴族과 왕위와 왕권의 추이

나집단이 상술한 바와 같은 성질이며, 그 領主와 같은 大加가 고구려 국가의 귀족 혹은 유력자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대가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고, 때에 따라서는 왕위 계승에도 배후 세력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원래 고구려 왕위의 계승에는 늘 피비린내 나는 계승사건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왕위 쟁탈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고, 거기에 고구려의 두드러진 정치사적 특징이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형태로부터 오는 고구려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데, 이와 함께 국가구성상의 나집단 세력이라는 것이 왕위계승 상에 적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 본기에서 전하는 실례에 의거하여 설명해 보자.

제7대 차대왕(遂成) 즉위의 사정

太祖大王八十年秋七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貫那于臺彌儒, 桓那于臺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初慕本(제5대)之薨也, 太子不肖, 羣寮欲立王子再思, 再思以老讓子者, 欲使兄老弟及, 今王既已老矣, 而無讓意, 惟吾子計之, 遂成曰, 承襲必嫡, 天下之常道也, 王今雖老, 有嫡子在, 豈敢覬覦乎, 彌儒曰, 以弟之賢, 承兄之後, 古亦有之, 子其勿疑, 於是左輔沛者穆度婁知遂成有異心, 稱疾不仕. 同, 九十四年秋七月, 遂成獵於倭山之下, 謂左右曰, 大王老而不死, 吾齒即將暮矣, 不可待也, 惟願左右爲我計之, 左右皆曰, 敬從命矣 云云 …… 冬十月, 右輔高福章言於王曰, 遂成將叛, 請先誅之, 王曰吾既老矣. 遂成有功於國, 吾將禪位, 子無煩慮 云云

次大王二年春二月, 拜貫那沛者彌儒, 爲左輔, 三月, 誅右輔高福章 …… 秋七月, 左輔穆度婁稱疾退老, 以桓那于臺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冬十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臺, 皆王之故舊.

제8대 신대왕(伯固) 즉위의 사정.

次大王二十年 …… 冬十月, 椽那皂衣明臨答夫因民不忍, 弑王, 號爲次大王,

新大王, 諱伯固 固一作句 太祖大王之季弟, 儀表英特, 性仁恕, 初次大王無道, 臣民不親附, 恐有禍亂, 害及於己, 遂遷於山谷, 及次大王被弑, 左輔菸支留與羣公議, 遣人迎致 …… 於是俯伏三讓而後即位.

제9대 고국천왕(國襄, 諱男武) 대 椽那의 반란

故國川王二年春二月，立妃于氏爲王后，后提那部于素之女也。

同，十二年秋九月 …… 中畏大夫沛者於畀留，評者左可慮，皆以王后親戚，執國權柄，其子弟，並恃勢驕侈，掠人子女，奪人田宅，國人怨憤，王聞之怒欲誅之，左可慮等與椽那⁸²⁾謀叛。

同，十三年夏四月，聚衆攻王都，王徵幾內兵馬平之。

제10대 산상왕(延優) 즉위의 사정.

고국천왕에게는 發岐·延優의 두 동생이 있었다. 고국천왕이 흥하자 왕후 우씨(제나부 출신)가 延優와 결탁하여 延優를 왕위에 즉위시켰다. 그래서 發岐는 반란을 계획하고, 우선 요동태수 公孫度에게 도망쳐 병 3만의 원병을 얻어 공격하였지만, 新主 延優의 병에 의해 격파되어 마침내 자결하였다. 延優는 우씨에 의해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씨를 세워 后로 삼았다. (고구려본기 산상왕 즉위조로부터 摘要)

山上王二年春二月，築丸都城。

同，十三年 …… 冬十月，王移都於丸都。

제11대 동천왕(憂位居) 대의 椽那

東川王四年秋七月，國相高優婁卒，以于台明臨於湫爲國相。
(참고로 明臨於湫는 椽那이다)

제12대 중천왕(然弗) 대의 椽那

中川王 …… 卽位，冬十月立椽氏爲王后，十一月，王弟預物奢旬等謀叛，伏誅。

同，三年春二月，王命相明臨於湫，兼知內外兵馬事。

同四年夏四月，貫那夫人(小后)이 왕후 椽氏와 총애를 다투어, 결국 四海에 던져졌다.

同，九年冬十一月，以椽那明臨笏觀，尙公主，爲駙馬都尉。

82) [역자 주] 번역문 주 17)의 역주와 동일.

이상 제7대 차대왕부터 제12대 증천왕에 이르는 사이의 왕위계승 사정을 고구려본기에 따라 열거한 것인데, 이들을 일독하면 알 수 있듯이, 왕위계승에 나귀족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다. 즉 태조대왕의 동생 수성을 옹립하고 반란을 계획하여 마침내 왕위에 앉힌 것은 貫那 于台 彌儒, 桓那 于台 菸支留, 沸流那 皂衣 陽神 등이며, 수성이 즉위(차대왕)하자 반대파였던 후보 高福章을 죽이고, 위 3인은 각각 옹립의 공에 따라 좌보 이하 정부 수뇌의 지위에 올랐다. 그런데 차대왕은 재위 20년에, 椽那 皂衣 明臨答夫에게 시해되고, 王弟 伯固(신대왕)가 옹립되었다. 신대왕 다음에 고국천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의 왕후로서 提那部 于素의 딸이 세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提那는 다음의 12년 조와 비교하면 椽那의 誤寫로 추정된다. 왕의 일족은 나라의 權柄을 사사로이 전횡함이 극에 달하였으니, 同王 12년 그들은 椽那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王都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본기에서는 王師가 이를 평정하였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후 椽那의 세력이 실추하였던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椽那의 패배로 끝났던 것은 아닌 듯하다.⁸³⁾

고국천왕의 사망 후 왕위계승의 爭亂이 있어, 前王后 우씨는 王弟 연우(산상왕)를 옹립하고, 재혼하여 새 왕의 后가 되었다. 즉 산상왕 즉위의 배후세력으로 연나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반대파는 王兄인 發岐를 옹립하고 요동의 公孫度에게 도망쳐, 그 원조를 얻어 來攻하였다. 이것을 기록한 고구려본기 산상왕 즉위조에는 왕이 동생 鬮須를 보내어 그것을 격파하고 發岐를 敗死시켰다고 하는데, 고국천왕 6년조에 「漢遼東太守興師伐我, 王遣王子鬮須拒之,」라고 하니, 같은 전투의 別傳인 것처럼 생각된다. 그 이유는 고구려본기는 故國川王紀와 山上王紀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發岐의 軍이 한때는 우세하였고, 산상왕 측에 패색이 있었던 것은 아닐

83) [역자 주] 원문에서는 이하 단락의 내용까지 아울러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문에서는 읽기의 편의성을 위해 단락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까. 그리고 이 왕대에 압록강 본류의 환도에 천도하여 있는 것도, 舊都가 發岐의 세력 하에 속하였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전하는 『위지』의 기록 즉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라 함에 거의 일치한다. 『위지』의 拔奇·伊夷模가 고구려본기의 發岐·延優에 해당하는 것은 그 字音으로 보아도 분명하다. 이렇게 양쪽의 기사가 이 정도까지 일치하는 것은 고구려사 상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위지』 측에 이 사건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진 것은, 發岐가 요동에 망명한 것에 의하였을 것이다. 양 기사의 비교에 의해, 연우(산상왕)는 연나의 세력에 의해, 發岐는 涓奴(那)의 세력에 의해 옹립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전자는 新國인 환도(國內)에, 후자는 비류수의 舊都에 근거하였다고 해석된다. 그 후 제11대 동천왕, 제12대 중천왕 양 왕대에서도 연나 귀족은 勢가 있었으며, 한편 王家와 통혼하고 있었던 것은 前掲 기사가 말하는 바와 같다.

이상 고구려본기에 따라 고구려 왕위계승의 사정을 태조대왕부터 중천왕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약술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가) 고구려 왕위는 一系 王統에 의해 계승된 것

(나) 다만 왕위에 오르는 것은 유력한 나귀족이 옹립하는 것이며, 때문에 계승의 반란이 자주 일어난 것

이 두 가지이다. 고구려본기의 기록이, 연대사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서, 나조직이 번영한 때의 고대 고구려 정권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면, 위 두 가지는 충분히 승인되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고구려 왕위는 나귀족의 힘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가 처음에 의문

으로 삼고 문제의 상태로 방치하여 둔 「本涓奴部爲王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는 『위지』의 기사는 고구려 왕위의 상기와 같은 사정을 말하는 것이며, 꼭 왕통의 교체를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디 涓奴部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舊都에서 涓奴加 즉 연노귀족이 奉戴한 拔奇(發岐)의 舊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나조직 상에서 선 고구려 왕위의 고대적 사정을 충분히 해독하지 못한 『위지』의 찬자는, 탁상으로 문헌사료를 정리하여 本涓奴部爲王云云이라는 식으로 誤記하여 버린 것이겠다. 이러한 오해는 漢史籍이 타민족의 국내사정을 기록하는 경우에 저지르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케우치 박사가 고구려본기에서 왕통을 一系로 전하는 것과 『위지』에서 전하는 바를 결부하기 위하여,

「宮王(고구려본기의 태조대왕) …… 이하로 이은 諸王의 계통 및 왕위계승의 관계는, 후한서 및 위지가 기재한 바에 의거하여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王家가 교체한 모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고구려가 涓奴部 계통의 왕을 세웠던 것은, 宮王이 존재한 당시(후한 中世)에 앞선 시대임과 동시에, 宮이하의 前記 諸王은, 모두 계루부 계통의 자들이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위지』에서 涓奴部 王統에 관하여 전하는 바를 서력 1세기 이전의 전설시대의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무리한 해석의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왕통은 계루부에 속하였지만, 이 계루부는 다른 나집단과 같이 이름의 어미에 奴(那)가 덧붙여져 있지 않는 점을 보아도 특수한 지위에 있었던 것을 살필 수 있다. 동시에, 桂婁 k-r는 句麗와 동어인 듯하며, 또한 沸流水邊의 건국 王都 忽本(卒本)의 忽 kor와도 동어이다. 원래, 忽·骨은 城 혹은 王城을 의미하는 고어이며, 고구려계의 부족인 북옥저도 일명 「溝瀆」로 칭하고 있다.⁸⁴⁾ 아마도 나집단의

84) 『魏志』, 東沃沮傳.

연합체로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고구려에서는,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 桂婁로 불리며 특정한 地位에 앉고, 왕은 이 桂婁의 族長이 차지하였던(내지는 선출된) 것이 되며, 國名도 고구려라 칭하게 되었던 것이겠다. 덧붙여 말하면, 高句麗의 高는 美稱의 접두어일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원시고구려도, 이윽고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부족연합체적 성질에서 점차 벗어나, 계루부 출자의 고구려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절대왕권국가로 차츰 발전하고, 그 원시성을 청산하여 간다. 그리고 상술한 국왕 추대에 관한 나집단의 세력 다툼은, 부족연합체적 성질의 혼적임과 동시에, 이미 그 사이에 왕권절대화로의 태동을 말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왕권절대화로의 진행은, 낙랑군을 멸망시킨 미천왕 때에 일단 완성되고, 광개토왕·장수왕 왕대에 그 극성기에 달하였다. 이것은 미천왕 대 이후에 이르러, 그때까지 끊이지 않았던 왕위계승의 반란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고구려 왕조사상의 획기적인 현상으로부터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나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요약한다면,

<p>나집단이 번영한 시대는 고구려의 부족연합체적 시기이며, 그 후 왕권절대화의 진전에 따라 나집단의 실력은 쇠멸하여 간다.</p>

라는 것이다.

이 나집단의 쇠멸과 왕권의 절대화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의 성숙에 따라 나타난 것이 五部の 제도이다. 五族 즉 나집단과 후의 고구려 오부제를 관계 짓는 해석은 오류이며, 전연한 바와 같이 이 두 개는 분리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임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전후할 뿐만 아니라, 전자는 원시사회적인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부정한 고대왕권국가적 제도이다. 그렇지만 전자가 부정되었다고는 하여도, 약간의 잔존 요소로서 새로운 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어, 사회적 전통으로서 어딘가에서 전승되었다. 이 잔존 문화의 문제는, 정치사적으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사회사적으로는 무시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